유혹에 빠진 아난을 구출하라



원웅 스님의 경전산책

㉞ 능엄경(楞嚴經) 1

〈능엄경〉은 사랑하는 제자 아난을 위한 가르침이다. 물론 처음 불교를 만나서 참다운 수행을 시작하려는 모든 이들에게 들려주는 가르침이기도 하다.

이 경의 원명(原名)은 〈대불정여래 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大佛頂如來密印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이다. 〈능엄경〉으로 줄여 부르며 한글대장경 173책 〈수능엄경〉에 실려있다. 한국인이 애송하는 경전이라 강의록이 많이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송찬우거사의 강론을 좋아한다. 읽다가 보면 번쩍이는 깨침이 눈 끝으로 들어와 마음을 새겨져 실천의지를 일깨워주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지난 여름 난생처음 만난 더위 속에 〈능엄경〉을 읽기 시작했다. 더위 때문에 편히 숨을 쉴 수도 없었지만 수행자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주술에 걸려 음욕의 늪에 빠지는 상황은 등골이 서늘해지니 이게 바로 납량경전이 아닌가 싶다.

〈능엄경〉에서 아난은 부처님을 따라 공부를 시작한 이후로 법문은 언제나 들었지만 자신의 지혜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 생각했다. 시자로서의 소임에 충실하느라 언제나 듣는 것에 만족하고 이 가르침에 의지해 수행할 마음을 내지 않았다. 그런 아난에게 '아난, 마등가녀의 유혹에 빠지다'는 희대의 스캔들이 터진 것이다. 부처님은 즉각 아난구출작전을 통해 구해낸 다음 다시는 그런 일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실천수행을 일러주었다.

이 사건은 출가자 전원에게 자신의 공부법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다. 법문을 많이 듣는 것만으로는 이런 난관과 장애를 극복하는 데 전혀 도움이 못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으니 아난의 희생으로 많은 이들을 실천수행의 길로 이끈 멋진 경전이 됐다.

그 내용은 이렇다. 부처님께서 모든 비구들이 여름안거를 마치고 3일에 걸쳐 안거 중에 일어난 서로의 허물을 지적하고 경책하는 자자일에 대중을 위하여 미증유의 법문을 설하셨다. 법회를 마치자 빠세다닉왕이 부왕의 기일에 천도재를 베풀고 부처님과 제자들을 왕궁으로 초청한다. 사위성의 모든 이들도 부처님과 제자들을 공양하기 위하여 다 왕궁으로 모여들었다.

그 때 부처님의 시자인 아난은 멀리 공양청을 받고 1박2일간 다녀오고 있었다. 보통은 공양청을 받으러 갈 때는 행동거지를 근엄하도록 만들어주는 상좌스님과 잘못된 실수를 방지해 주는 궤범사와 함께 길을 나서는데 어쩐 일인지 그 날은 아난이 홀로 떠났던 것이다. 아난이 기원정사에 도착했을 때는 부처님과 대중들이 모두 공양과 제를 받으러 떠났기 때문에 공양거리도 없고 스님들도 없었다. 아난은 발우를 들고 탁발을 나오며 생각했다.

'오늘 처음으로 불자가 되어 첫 공양을 올리는 신도를 만나면 그의 신분이나 빈부에 대한 차별 없이 평등하게 그를 위하여 법을 설하리라.'

아난의 고요하고 정갈한 자태로 탁발하는 모습에 반한 아가씨 하나가 어머니인 마등가에게 달려가 저 분과 결혼하고 싶다고 했다. 마등가는 부처님의 제자는 결혼하지 않는다고 하며 반대하자 딸은 목숨을 버리겠다고 겁박했다. 이에 딸을 살리려고 마등가는 자신의 전공인 주문, 사비가라선범천주로 아난을 홀렸다.

일촉즉발, 아난의 운명이 위급한 순간, 부처님이 아시고 빠세다닉왕가의 천도재를 마치고 아난을 구하기 위해 설법하지 않고 바로 기원정사로 돌아오셨다. 법문을 듣지 못한 왕과 함께 모든 이들이 부처님을 따라 왔다. 그 때 부처님은 자리에 앉으시고 정수리에서 모든 보배로 장엄하여 두려움 없는 광명을 놓으셨다. 그 광명 속에선 천 개의 잎으로 이루어진 보배연꽃이 출현하더니 연꽃 속에서 화신불이 등장하여 능엄주를 설하였다. 부처님은 문수사리보살에게 명령하여 능엄주를 가지고 가서 음실에 빠진 아난을 구하라고 하셨다. 문수사리보살이 즉시 가서 염불하자, 마등가가 행한 악한 주문은 순간 힘을 잃어버렸다. 문수사리보살은 아난과 마등가의 딸을 함께 데리고 왔다. 아난은 부처님을 뵙자 엎드려 서럽게 울었다.

"그동안 부처님께 항상 들어 온 삼관법문(三觀法門)을 수행하지 않아 도력을 이루지 못해 오늘 이런 수모를 당하였습니다. 제가 지금 마군의 세력에 갇히고 나서야 법문을 많이 들었다고 수행의 힘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특히 애욕의 번뇌는 삼관수행인 사마타, 삼마, 선나가 아니면 녹일 수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아난은 부처님께 삼관법문을 수행하는 최초방편문을 청하였다. 애욕을 끊는 가르침, 능엄의 가치는 청정계율이이며, 음욕을 끊는 일을 가장 우선시하는 가르침이다. 〈계속〉

〈서울 반야사 주지〉

무료급식으로 마음부자 되다



김원수의 〈금강경〉 강의

㉝ 참부자의 의미

어려운 이웃을 위해 개설한 무료급식소가 세상에 널리 알려지자 종종 잡지사나 방송사 등에서 취재오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우리는 사회복지법인을 만들었기 때문에 기자들은 우리 복지법인도 정부로부터 각종 혜택을 받는 줄 알고 질문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의 뜻을 받들어 '마음 닦는 무료 급식'을 하는 것이지, 봉사단체로서의 무료 급식소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체로서 외부 지원을 받아 자선 사업하는 것이 어째서 나쁘다는 말입니까?"

"단체로서 외부지원을 받아 자선사업을 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에게 금강경을 가르쳐 주신 선생님께서는, 단체를 운영하려면 회비가 있어야 하고 회칙이 있어야 하는데, 회비를 내라하고 회칙을 지키라 하는 단체의 정신은 '마음 닦는 정신'을 잃어버리기 쉽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마음 닦는 무료 급식이기에 다른 자선사업 단체에서 행하는 자선 급식과는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아니요 물론 정부의 보조를 받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닦으려는 마음으로 스스로 돈을 내며, 무보수로 연습을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항상 자금이 부족하였고, 그 때마다 '무료 급식 잘해서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기를 발원 하자'고 원(願)을 세웠는데, 그때마다 발원이 통하였는지 여기저기서 물질적 후원자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봉사원이 부족할 때에도 봉사원을 구하러 다니기보다는, '많은 봉사원들이 즐겁게 이 무료 급식 봉사에 참여하여 부처님 시봉 잘하기를 발원한다'고 원을 세웠으며, 이렇게 원을 세우면 봉사자들이 꾸준히 보충되고는 하였습니다.

봉사원 중에는 불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참여한 가톨릭 신자, 개신교 신자들도 있습니다. 금강경의 말씀처럼, 〈금강경〉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일체 세간의 하늘과 사람과 아수라가 다 마땅히 공경한다는 말씀이 실감났습니다.

이러한 10년 이상의 무료 급식 수행으로, 나는 인색하고 성 잘내는 마음을 해탈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소득은 큰 부자마음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선물을 받는 기쁨보다 조금이라도 베푸는 기쁨이 더욱 큰 것임을 알게 되었으며, 주는 것이 손해요 받는 것이 이익이라는 생각이 잘못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듯 내 마음속의 거지 마음과 궁한 마음이 사라지게 되었으며, 나는 만년 월급쟁이의 가난한 용심(用心)에서 벗어나 부자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당신은 가진 것이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어찌 부자라고 하느냐?" "그대는 부자의 표준을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느냐? 돈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단 한 푼도 베풀지 않는다면 부자라 할 수 없는 것이다. 나는 비록 물질적 재산은 적지만, 정신적 물질적으로 베푼 양을 따져 본다면 큰 부자 반열에 올라도 전혀 손색이 없다." 나는 비로소 선지식의 가르침을 실현하여 먹고사는 문제를 다 해결하였고, 오히려 항상 어떻게 더 줄까를 생각하는 큰 부자가 된 것이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바른법연구원 이사장〉



청운 스님의 생활속 '이뭣고' 수행

신심명(信心銘)과 '이 뭣고'

중국 수대(隨代) 선승인 삼조(三祖) 승찬 대사는 젊은 시절 풍질 문등병에 걸려 천형(天刑)으로 믿었으며, 그 죄를 참회키 위해 이조(二祖) 혜가(慧可)를 찾아갔다.

"제자의 몸이 풍질에 걸렸습니다. 청하건데 저의 죄를 참회시켜 주십시오"

대사가 말했다. "죄를 찾아온다면 자네를 참회시켜 주겠네"

승찬이 묵묵히 있다가, "죄를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대사왈 "내가 그대의 죄를 참회시켜 마쳤다. 마땅히 불법승 삼보에 의지해 살아야 하느니라"하시고, "그대는 나의 보배이니, 이름을 승찬(僧璨)(승가의 옥구슬)이라 하리라"고 하였다.

내가 이제 그대에게 깨달음의 본체인 정법안장(政法眼藏)과 달마대사께서 믿음의 표시로 주신 가사를 주노라 하시며 '본래연유지(本來緣有地) 인지종화생(因地種華生) 본래무유종(本來無有種) 화역부증생(華亦不曾生)'이라 했다. 이를 풀이하면 "본래 땅이 있음을 인연(因緣)하여 땅으로부터 씨앗이 꽃을 피우나 본래 씨앗이 있지 않았다면 꽃도 또한 일찍이 피지 않았으리"고 하시며 법을 전했다.

우리의 자성번뇌도 번뇌의 뿌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중생의 마음이 미(迷)해서 뿌리없이 잠시 일었다가 살아나는 조작(造作)인 것이며, 생사 또한 인연따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뜬 구름같은 것이라 진여실상(眞如實相)에는 없는 것이다.

> **"간택(揀擇)이란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싫은 것은 피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좋고 싫은 것이 한 생각일 뿐, 그 생각이 없으면 자연히 따라서 모두 없어지는 것이다."**

낭야각 선사에게 어느날 재상이 편지로 "신심명은 불교의 근본 골자로서 지극한 보배입니다. 이 글에 대해 자세한 주해(註解)를 내려 주십시오"하고 부탁하니, 답하길 "지도무난(至道無難) 유념간택(唯嫌揀擇) 단막증애(但莫憎愛) 통연명백(洞然明白)"이라 했다. 즉 "도(道)에 이르는 길은 어렵지 않으니, 오직 간택하는 마음을 내지마라, 미워하고 사랑하는 분별심만 내지 않으면 모든 것이 막힘 없이 뚫려 훤하게 되리라"는 첫 구절만 크게 쓰시고, 나머지 뒷 구절은 모두 조그맣게 써서 주해를 붙여 주었다.

이것이 신신명에 대한 천고(千古)의 명 주해(註解)로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실이 되었다. 간택(揀擇)이란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싫은 것은 피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좋고 싫은 것이 한 생각일 뿐, 생각이 없으면 자연히 따라서 없어지는 것이다. 한 생각 망상, 시시분별의 주인공인 아(我)라는 실체없는 에고의 소멸이 지도(至道)이며, 이때 그것이 사라진 자리에 본래 면목이 드러나 반야지혜의 무분별지(無分別智)가 유념간택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미워하고 사랑하는 마음, 즉 증애심(憎愛心)이다. 이것만 완전히 버리면 무상대도를 성취하지 않을 수 없다. "호리유차(毫釐有差)면 천지현격(天地懸隔)이며, 욕득현전(欲得現前)이면 막존순역(莫存順逆)"이라고 했다. 즉 털 끝만큼이라도 차이가 있으면 하늘과 땅 사이로 벌어지나니, 도가 앞에 나타나길 바라거든 따름과 거슬림서 벗어나라. '따름'과 '거슬림'을 버리라는 것은 상대법으로, 따른다 함은 좋아한다는 것이고, 거슬린다 함은 싫어한다는 것이다. 즉 한 생각이 주객전도 되어 주인노릇 하는 것을 멈추게 하라는 것이다. 나의 간택함과 전혀 상관없이 인생이 진행됨을 알게 된다면, 간택을 뒤로 하고 모두가 지극한 도(道)에 들게 될 것이다. 이것이 진리의 전부이다.

〈남양주 선재사 주지〉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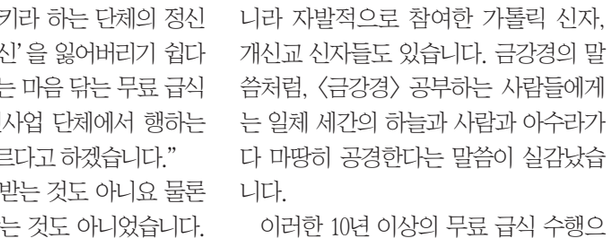
기방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제품의 특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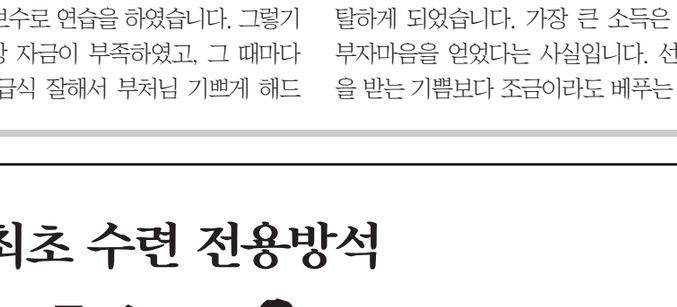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www.hyunbulshop.com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Buddha Book



지면에 진열된 상품들은 붓다북에서
미니불상으로
검색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www.buddhabook.co.kr

서울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동일하이빌 지하 1층 (주) 운주사 Tel. 02-953-7181